

“선생님,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김승환 교육감 스승의 날 맞아 교원들에 감사의 편지 보내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스승의 날인 지난 15일 도내 교원들에게 존경과 감사의 편지를 보냈다.

김 교육감은 편지에서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헌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보냅니다”며 “전북교육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학교 현장에서 땀흘려주신 선생님들 덕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교육감은 “우리가 가는 이 교육의 길에는 봄바람만 부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태풍이 불어오기도 하고 차디찬 비를 억울하게 맞을 때도 있다”면서 “선생님들과 함께 선생님들의 자존감을 지켜내는

일을 계속 해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어 “우리 전북의 선생님들과 함께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고 끝을 맺었다.

다음은 김 교육감이 쓴 편지의 전문이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전라북도의 선생님 여러분, 스승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올봄 처음 세상을 본 일사귀들이 어 느덧 우리 아이들의 손바닥만큼 자랐 습니다. 손바닥 같은 어린일들이 바람 에 몸을 뒤쳐며 반짝거리면, 학교에서 자라고 있는 귀한 학생들이 생각나

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해 묵묵히 헌 신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저도 모르 게 가슴 깊이 감사의 인사를 보내게 됩니다. 전북교육이 이만큼 성장하게 된 것은 바로 학교 현장에서 땀흘려주 신 선생님들 덕분입니다.

전북교육이 맑아지고 투명해진 것 역시 선생님들께서 신념을 갖고 함께 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선생님, 선생님은, 어두운 교육의 하늘에 가장 먼저 떠서 가장 나중까지 빛나는 가장 아름다운 별입니다.

선생님, 우리 교육의 하늘을 끝까지 지켜주세요. 우리가 가는 이 교육의

길에는살랑이는 봄바람만 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생각지도 못한 태풍 이 불어오기도 하고 차디찬 비를 억울 하게 맞을 때도 있습니다.

앞에서 열심히 봄바람을 막아보려 하지만 제 힘만으로는 부족하여 마음 아픈 날도 많습니다.

그러나 선생님들과 함께 이 길을 끝 까지 걷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손 하나하나를 꼭 붙잡고 ‘나는 교사다’라는 자존감을 지켜내는 일을 계속 해나 가려 합니다.

우리 전북의 선생님들과 함께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선생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존경합 니다. 전북의 교사가 되어주셔서 고맙 습니다.

/고민형 기자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검정고시 합격자58명배출

전주시와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센터장 정혜선)의 사업지로 지정받은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전주 YWCA 위탁)는 지난 4월 10일 진행된 2016년 1차 검정고시 시험에서 총 58명의 합격자를 배출했다.

특히 이번에 전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시험을 준비한 청소년 60명이 검정고시에 응시해 총 58명이 합격, 97%의 높은 합격률을 보였다.

전주시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는 이번 검정고시를 합격한 청소년들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원과 개입을 통해 검정고시 합격뿐만 아니라 자격취득, 직업 훈련, 상급학교 진학 등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홍보 캠페인

송하진 도지사는 14일 금산사에서 열린 법요식에서 16일부터 실시되는 '2016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도민들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재난대응 안전 한국훈련에 대한 홍보 캠페인을 진행했으며 도민들의 참여를 부탁했다.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 팔복동 산단 환경규제 강화 촉구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 대거 노출 주민들 불안과 우려 커지고 있어”

전주시의회 김진옥 의원이 팔복동 산업단지에 대한 환경규제 강화와 특별관리 대책 수립을 촉구했다.

김진옥 시의원(팔복·조촌·동산·송천2동)은 13일 제330회 전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건설폐기물 등 폐기물처리시설과 대기오염배출시설이 밀집한 팔복동 전주시산업단지 주변 공업지역에 대한 환경규제와 특별관리 대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특히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육식 가습기 살균제 피해의 근본원인은 이온인을 쫓는 부도덕한

기업과 실효성 없는 정부의 규제, 부실한 법체계가 애꿎은 국민들의 피해를 키웠다”며 팔복동 공업단지 주변 환경규제 강화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전주시산업단지에는 주거지역 1km 이내 전주시 소재 건설 폐기물 중간처리업체 6개소가 모두 집중돼 있다.

또한 전주시 팔복동 송천동 일대 공단 주변으로 산업폐기물 소각시설 등 대기오염배출시설과 폐차장 등 폐기물 배출시설들이 몰려 있어 미세먼지 를 비롯한 대기오염 물질에 대거 노출 된 주민들의 불안과 우려가 커지고 있

다.

여기에 최근 공단 내 천일제지에 열(스팀)을 공급하는 회사인 TSK그린에 너지가 대기배출시설설치 허가를 고형연료 사용시설에서 자동차 파쇄 잔재물 폐기물 소각시설로 변경신고, 파쇄시설까지 증설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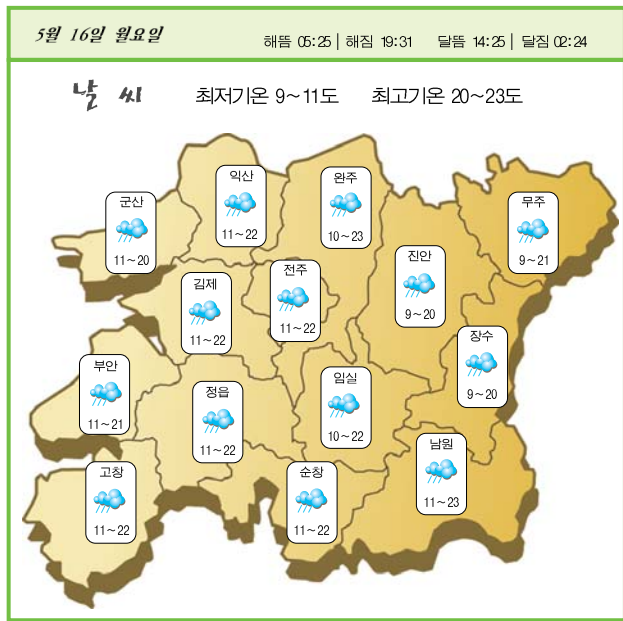
김 의원은 “이 시설은 자동차 폐차 후 최종 발생하는 파쇄잔재물에 수은과 납, 카드뮴, 크롬, 비소 등 유해물질을 함유, 소각 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되어 주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도 이 업체는 대기배출

시설가동개시 신고도 하지 않고 가동하다가 최근에 고발조치 되는 등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며 배출시설 가동을 즉각 중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 “TSK그린에너지를 비롯해 전주시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체가 6개소가 있는데 이들 6개소가 모두 팔복동 일대 전주시산업단지 및 주변 공업지역에 몰려 있고 특히 6개소 모두 주거지역 1km 이내 입주해 있어 날뛸만지, 악취, 대기오염 물질로 인해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건강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한 특별관리 대책을 주문했다.

/김영재 기자



도교육청, 도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나서

193개 학교 총 3억 8,000만원 지원

전북도교육청이 도내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에 나선다.

15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 체력 증진과 스포츠 활동을 통한 실천적 인성교육을 위해 초·중·고 193개 학교스포츠클럽에 총 3억 8,000만원을 지원한다.

클럽 당 200만원을 지원해 유니폼 등 용품 구입비, 프로그램 운영비, 지도 강사비로 활용하게 된다.

이번 학교스포츠클럽에는 초등학교 44개와 중학교 61개, 고등학교 30개, 여학생 58개 등 총 193개 클럽으로 전주 40클럽, 군산 24클럽, 익산 29클럽, 정읍 12클럽, 남원 14클럽 등이 다. 도교육청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 확대 등 틈새시간을 활용해 학교

스포츠클럽 활동을 늘리는 한편 스포츠클럽 운영에 필요한 운동용품, 교내 스포츠클럽리그 운영비 등의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은 이와 함께 올해 여학생 체육 활성화를 위해 전주 완산여고와 군산여상, 진안여중, 순창고, 부안여중 등 9개 학교를 선정, 교당 300만원을 지원한다.

이들 학교는 요가 라켓스포츠 방송댄스 등 여학생 선호종목 수업 등을 운영하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여학생들은 남학생에 비해 학교스포츠클럽 활동이 부족하기에 여학생이 선호하는 종목 중심의 여학생 특화 체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탈의실 확충에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전북대-한국가스공사 연구·인력자원 개발 협약

전북대학교와 한국가스공사가 연구 및 인력자원 개발 등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양 기관은 지난 13일 전북대 본부 8층 회의실에서 이남호 총장과 허재영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연구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특히 자원개발 분야에 연구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공동 연구와 인력자원 개발 및 교육훈련 등을 통해 우수 연구 성과를 도출하고, 관련 분야 전문 인력 양성에도 나설

예정이다.

또한 각종 국내외 회의 및 세미나 공동 개최, 정보나 연구시설 등도 긴밀히 교류하기로 했다.

이 총장은 “전북대는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 감축 활동을 가장 잘 실천하고, 산업통상자원부 자원개발 특성화대학에 선정돼 에너지 기술개발에도 앞장서고 있다”며 “청정에너지 분야에 경쟁력 있는 두 기관이 힘을 모은다면 국가 에너지 산업을 이끌 맞춤형 인재 육성과 기술개발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고민형 기자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들

한지 수의, 남궁함, 한지벽지, 장판, 수제한지탁순지, 색한지, 공예용지, 예술지, 예담지, 예견지, 응용한지인견한지, 대례지, 환희지, 순수운용지, 아토피피부염, 미백에 효과가 있는 한지비누, 닥분말팩, 각종 한지사 제품 넥타이, 양말, 지갑, 손수건, 러너 등

천년을 숨 쉬는 전주한지

견오백 지천년(絹五百紙千年)이라는 말처럼 한지는 질기다
전주한지는 만지면 느껴지는 촉감이 부드럽다
전주한지는 통기성이 좋다
전주한지는 보온성이 좋다